그린사이언스, 석탄가스발전 제안

환경친화적 발전기술로 10MW 생산 ... 2015년부터 상업발전 가능

그린사이언스가 강원도 태백시에 플라즈마(Plasma)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린사이언스는(대표 이봉주)는 2013년 9월11일 태백시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총 사업비 471억원을 투자해 발전용량 10MW의 플라즈마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린사이언스는 2014년 10월 완공한 후 시험가동을 거쳐 2015년 5월부터 상업발전을 시작할 계획이다.

스팀 플라즈마 석탄가스화 발전기술은 높은 온도와 압력을 가해 가스로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로 석탄 화력발전에 비해 발전 효율이 높고 황산화물과 이산화탄소 등을 적게 배출해 환경 친화적인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린사이언스는 석탄가스화 발전기술이 상용화에 성공하면 인디아,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의 수출도 기대하고 있다.

그린사이언스는 2013년 초 본사를 대전에서 태백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사이언스 관계자는 “발전소 건설을 기반으로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알코올 (Alcohol)을 생산하는 등 플라즈마 석탄발전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는 탄광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석탄 활용 플라즈마 사업 등 신에너지지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9/11>